

“강진에서 청년창업의 꿈 현실로”

전남청년 창업지원 사업 5명 대상자 선정 리모델링·집기 구매 등 총 1800만원 지원

강진군 전남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지역 내 청년 정착과 창업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으로 군은 지난 5월 6명의 지원자를 선정받았다. 이후 6명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한 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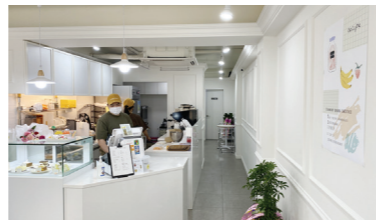
평가를 통해 6월에 5명의 사업대상을 선정했고 이후 7월 창업심화교육(컨설팅)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사업 예정지 리모델링 및 집기 구매 등 오픈을 위한 준비와 함께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창업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9월 말을 기점으로, 현재 총 5명

의 청년들이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했다.

‘카페 본비’(디저트 카페), ‘요리노리’(쿠킹 클래스, 케이터링, 원데이 블 레스토랑), ‘낭만지구’(여행자 카페)가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14일에는 ‘플레이 휠’(카페)이 오픈할 예정이다. ‘복고동’(천연염색)은 현재 브랜드 런칭 및 샘플을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안에 펀딩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자 정하림(카페 본비 운영) 씨는 “창업지원금을 인테리어 비용, 재료비 등으로 활용해 초기 자금 마련에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의 기반



강진군 카페 본비(왼쪽 상단, 디저트 카페), ‘요리노리’(왼쪽 하단, 쿠킹 클래스, 케이터링, 원데이 블 레스토랑), ‘낭만지구’(오른쪽, 여행자 카페)는 전남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하고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곳들이다.



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준범 일리리창출과장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축이 되고 안정적으로 강진군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 또한 활발한 이용 및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기차 여행객 뽑은 ‘최고의 여행지’ 정종순 장흥군수 “소통과 공감의 관광자원 만들겠다”

장흥군이 기차여행객이 뽑은 2020 최고의 여행지에 선정됐다.

SRT 매거진은 올해 SRT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장흥을 비롯해 단양 등 10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는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 3년째로 해마다 탐승객 대상 설문조사와 여행자가, 여행전문기자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해 오고 있다.

2020년 최고의 여행지 선정은 올해 SRT 매거진에서 소개한 전국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8022명의 독자가 동참했으며, 전문가 심사는 여행작가와 여행전문기자 등 10명이 참여했다.

장흥군은 산과 바다, 강과 들이 어우러진 청정 지역으로 한우삼합과 무산김, 매생이 등 사계절 먹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의향’의 깊은 역사를 간직

하고 있다.

장흥군 장동면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사당 ‘해동사가 자리하고 있다.

남쪽 바닷가에 자리한 회령진성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조선 수군을 재건하고, 명량해전 승리의 기틀을 다진 역사 유적지다.

장흥읍 석대들은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적지로 이름이 높다.

‘문림’으로도 잘 알려진 장흥의 문맥은 조선 가시문학의 효시인 백광홍 선생을 시작으로 현대문학으로 이어져 있다.

이정준, 한승원, 이승우 등 국내를 대표하는 수많은 문학의 거장들이 장흥군에서 나고 자랐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과 공감의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 신지 명사십리에 ‘스머프’가 등장한 이유는

친환경해수욕장 인증 ‘블루플래그’ 공식 마스코트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개구쟁이 스머프’ 조형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개구쟁이 스머프는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로, 친환경·안전 국제인증인 ‘블루플래그’ 공식 마스코트다.

완도군은 국내 최초로 2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 청정바다 살리기의 의미를 살려 스머프 조형물을 설치했다.

스머프 조형물이 설치된 배경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환경교육재단(FEE), 스머프(벨기에 IMPS그룹) 등이 협력을 맺고 매년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

다.

이번에 설치된 스머프 캐릭터는 공북별레로 유명한 톱뿔이 스머프로, 책 대신 쓰레기봉투를 들고 환경 보호 캠페인에 나서는 형상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국내 최초 2년 연속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이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징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오는 12월부터 신지 명사십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해변의 쓰레기를 담아 스머프 조형물과 인증 샷을 찍으면 기념품과 함께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스머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548억원 지급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548억 2,600만원 예산을 확정하고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1만4,000여명, 농업법인 69개소로 2만 8,600ha면적이 해당된다. 지난해 직불금 333억원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로 전국 2조 2,753억원의 2.4%, 전남 4,471억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4,327명에게 52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9,678명, 496억 2,600만원이 지급된다.

기동취재본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등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전남 5호 준공식 결실

전남과 경북에서 1천4명(천사)의 후원자를 모집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사업이 진도군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지난 11일 진도군 임회면에서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추진위원, 초록우

산 어린이재단, 전남도·진도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후원금을 활용해 지은 ‘천사보금자리 5호’ 준공식을 가졌다.

‘영·호남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는 나눔을 통한 지역·계층·세대 간 화합

을 위해 전남과 경북에서 1천4명 이상의 후원자를 발굴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아동 교차 지원 사업이다.

2015년 당시 영·호남 도지사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영·호남 천

사프로젝트 추진위원 등이 모여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했다.

진도군 임회면 관계자는 “대상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